

소값 날자 뛰는 삼겹살값 한달새 11% ↑

비싼 한우 대신 돼지고기...행락철 맞아 고공행진 100g 2230원...7~8월 휴가철 이어져 더 오를듯

“돼지고기 값이 3월달에 비해 2배가량 올랐는데, 삼겹살 가격을 올리지 못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19일 밤 9시, 광주시 동구 구동의 A삼겹살 전문점 안은 밀려든 손님으로 가득 찼지만 주인의 얼굴은 어두웠다. 평소 출근 준비 탓에 일요일 밤에는 손님이 없지만 돼지고기 값이 오른 최근에는 직접 사서 구워먹는 것과 전문점에서 사먹는 가격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일요일에도 삼겹살 전문점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았지만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게 주

인의 하소연이었다.

한우 가격이 오른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비싼 한우 대신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고,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가족과 함께 돼지고기를 직접 구워먹으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다.

또 지난 1~3월 발생한 구제역 파동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15일 기준 1등급 돼지고기 도매가격 5827원이었다. 이는 올해 최저 가격이었다던 지난 2월5

일 가격 3689원에 비해 61.11% 상승한 수준이다. 지난 2월5일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삼겹살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광주지역 돼지고기 전문점들에 따르면 삼겹살 1kg의 가격은 현재 2만~2만1000원에 상인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목표는 이보다 1000원가량 낮은 가격에 도매상을 통해 식당에 유통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에 비해 2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소비자가격도 비슷한 모양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자료를 살펴보면, 15일 기준 삼겹살(100g) 소매가격은 223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4% 상승했다. 월별 기준도 마찬가지. 올해 삼겹살(100g) 소매 가격은 1월 1832원에서 6월 2129원으로

16.21%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소고기처럼 사육 마리 수의 감소가 아니라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나들이철인 4~5월 상승한 돼지고기 수요가 7~8월 휴가철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마다 휴가철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줄지는 않았지만 올 해는 비싼 한우의 대신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까지 더해져 가격 상승이 더욱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우 가격은 도축 마릿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년인턴 55명 공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형 청년인턴 55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채용된 인턴은 4개월 이상 근무 후 평가를 거쳐 90% 이상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입사지원서 평가,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서울·부산에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채용 홈페이지(<https://kamco.career.co.kr>)를 통해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8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 냉장고 “조리까지 도와드려요” 삼성전자 직원이 지난 18일 서울 일렉트roma트 영등포점에서 열린 ‘패밀리 허브 체험로드쇼’에서 소비자들에게 패밀리 허브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살 코스닥 1164개社 시총 207조원

코스닥 시장이 내달 1일로 만 20살이 된다. 어엿한 청년기를 맞이까지의 코스닥 시장 이제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이루어 재도약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평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주년을 앞둔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이달 17일 기준 206조9000억원, 상장기업 수는 1164곳에 달할 정도로 외형이 성장했다. 개장 첫 해 말의 상장기업 수는 331곳, 시가총액은 7조6000억원 규모였다. 몸집이 27배로 커졌다.

하지만 코스닥의 성장세에도 개인 투

자 위주의 시장이어서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은 88.5%에 달했다. 코스피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거쳐가는 ‘마이너 시장’이란 이미지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피와 달리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도 코스닥 시장의 한계로 거론된다.

한편 1995년 광주 업체인 대신정보통신 상장으로 시작한 광주·전남 코스닥 시장은 행남자기, 제이웨이, 남화토건, KPX 생명과학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기준 12곳이 상장돼 있다. 이들 기업 자산총계는 7919억원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은행-캄보디아 해외송금 협약

프놈펜 상업은행...중개은행 안거쳐 비용 절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CPB)과 해외송금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취은행이 프놈펜 상업은행인 경우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이 가능해 중개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오후 4시 이전에 해외송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취인 계좌에 당일 송금도 가능하다.

외환사업실 윤희중 실장은 “이번 협약

을 통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이 자국으로 송금을 보낼 경우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외은행과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놈펜상업은행은 6월 중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광주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그룹의 첫 번째 해외 네트워크로 편입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효성 전주공장에 들어선 탄소화합첨보육센터 전경. <효성 제공>

전주 탄소기업 유럽 진출 총력

4개社 독일 ‘CFK 밸리 컨벤션’ 참가 제품 전시·상담

효성그룹의 지원을 받는 전주 지역 탄소관련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를 마련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7일간 독일 슈타데에서 열린 ‘CFK 밸리 컨벤션 행사’에 참가, 전주의 탄소산업과 전통문화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전주의 탄소밸리에는 2014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효성그룹의 탄소섬유공장과 탄소섬유를 이용해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46곳이 있다. 또 탄소기술 연구 및 이전, 창업 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운영 중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CFK 밸리 컨벤션 2016’은 유럽을 대표하는 탄소복합소재 전시회로 이번 행사에는 세계 21개국 30여 업체가 참여했다.

전주시는 조봉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파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테크카본, 테크항공, 피치케이비 등 국내 탄소 관련 4개 기관의 제품을 전시하고 상담을 받았다.

특히 조 부시장은 현장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으며, 탄소융합기술원 이사인 하성규 한양대 교수도 그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전주공장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해 탄소화합첨보육센터를 건립했다. 첨보육센터에서는 회사 경영 노하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효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17년까지 1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양성하고, 혁신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

한전, 전력개량 인프라 사업 설명회

하반기 2000억 투자 200만 가구 스마트미터 등 설치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지난 1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50여개 AMI 기기제작 중소기업과 함께 2016년 AMI 구축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한전과 참여업체는 AMI 구축사업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및 담합방지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서명식을 시행했다. AMI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전력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전이 주도 해 2020년까지 국내 전기사용고객 2000만호 전체에 대한 AMI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사업은 2015년 하반기에 마무리되어 현재 약 250만호를 운영중이며, 올해 2차 사업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0만호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미터, 데이터집중장치, 모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이날 AMI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 정보제공 서비스(가칭 ‘파워플래너’)를 공개했다.

파워플래너는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전력 사용정보 제공, 이웃간 전력사용량 비교, 사용량 초과 사용시 알람 등의 기능이 구현되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3.0’의 기조에 부응하여 개발된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12 19 24 39 44 3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22,167,313	1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5,734,252	74
3 5개 숫자일치	1,318,213	2,006
4 4개 숫자일치	50,000	94,281
5 3개 숫자일치	5,000	1,507,647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목,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